

chúng ta



5월호 Tháng 5

목차

1. 활동 내용

- 홍안 유치원
- 레던친 초등학교
- UTE
- 스마일 레스토랑

2. 중간 점검

중간 보고회

3. 우리의 생활

4. 되돌아 보기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UTE | 3 | 4 홍안유치원 | 5 UTE | 6 레딘친 초등학교 | 7 이창현단원과 만남 |
| 8 | 9 UTE | 10 스마일 레스토랑 | 11 중간보고회 준비 | 12 레딘친 초등학교 | 13 UTE | 14 형민이생일 강호간사님도 참 |
| 15 동화간사님 도착 | 16 중간보고회 | 17 스마일 레스토랑 | 18 홍안유치원 | 19 UTE | 20 레딘친 초등학교 방학 | 21 동혁이 생일 |
| 22 | 23 UTE | 24 스마일 레스토랑 | 25 | 26 홍안유치원 졸업식&방학식 | 27 레딘친 초등학교 방학 | 28 유정이 생일 카페티모르 분들과 식사 |
| 29 | 30 | 31 스마일 레스토랑 | | | | |



활동 내용

1. 흥안 유치원



흥안유치원은 2세부터 6세까지 150명의 아이들로 구성된 베트남 YMCA산하의 유치원으로 To serve, not to be served의 정신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호치민에서 조금 벗어난 호이비안 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는 활동 전 날 오후 그 곳에 미리 도착하여 저녁을 먹고 잠을 잔 후 새벽 5시 30분부터 부지런히 일정을 시작한다.

지난 5월 26일 흥안유치원에서 6세반 아이들의 졸업식이 있었다. 졸업식 당일에는 선생님, 학생, 학부모 할 것 없이 모두들 예쁘게 단장을 하고 참석하였으며 수많은 학부모님들로 유치원이 붐비었다. 선생님들의 인사로 졸업식은 시작되었고 동생들의 귀여운 축하무대와 연극 그리고 6세반 아이들의 치어리딩 자축무대까지 볼거리가 가득한 졸업식이었다. 또한 일주일에 한번씩 많이 보지도 않았지만 떠나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짝한 것이 졸업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아이들의 힘찬 포옹에 눈물을 흘리는 원장선생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되었다.



1. 흥안 유치원



조금 놀라웠던 아이들의 치어리딩

1. 흥안 유치원



유치원의 졸업식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는 평소와 같이 냉장고바지에 단복을 착용하고 활동에 임하였다. 우리 또한 퍼포먼스를 부탁받았기에 올챙이 송과 곰 세 마리를 준비하였는데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선생님들을 보니 다들 화장에 드레스에 아오자이까지.. 꾸민 모습을 보며 아차하였다. 꽤나 큰 공식 행사였는데 우리가 드레스코드를 맞추지 못해서 민망하였지만 예쁘게 봐주심에 보답하기위해 열심히 퍼포먼스에 임하였다. 다음 졸업식을 함께하게 될 17기는 꼭 졸업식 날 단복보다는 깔끔하게 예쁜 옷을 입고 단장을 하여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할 수 있었다.



졸업식이 끝난 후 뒷풀이 회식



선물로 주신 과자박스



홍안유치원은 주변의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1층에서 음식까지 다루다보니 바퀴벌레가 매우 많은데 우리가 잠을 잘 때 몸에 기어오르는 등의 사건이 매번 있어서 모든 팀원이 홍안유치원에서 잠을 자는 것에 큰 불편함을 느낀다. 심지어 밤을 꼴딱 새는 팀원도 있어서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힐링이지만 바퀴벌레로 인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문제점이 있다.

처음 우리가 중간평가 때 “홍안유치원에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라는 말에 동화선생님께서 “벌레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월터치 텐트를 구매해보는 것은 어때냐” 하는 피드백을 주셨다. 그 때에는 꼭 벌레 때문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벌레 때문임이 확실해졌다. 더 정확히는 바.퀴.벌.레 (두둥) 정말 절레절레다. 잠을 자고 있으면 몸에 기어오르는 등으로 기겁을 하는 것은 다반사요 빈도 수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적응보단 진저리만 더 커질 뿐이었다. 아직 월터치 텐트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한 관계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1. 불 켜놓고 자기

> 확실히 바퀴벌레가 나오진 않았으나 조명 탓에 잠들기에 너무나 힘들었다.

2. 이름을 붙여 친숙해지기 > 바퀴벌레라고 부르는 대신에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토마스

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확실히 입으로 바퀴벌레 라고 부르는 것 보다는 토마스 라고 하니 조금은 징그러운 느낌이 덜해지긴 했지만 그것이 끝이었다.

3. 모기향 피우고 자기 > 한번밖에 시도하지 못했지만 피운 날에 모든 팀원이 그래도 잠을 꽤

잘 잤다 라는 후기가 많았기에 매주 향을 피우기로 하였다.

홍안 유치원의 토마스들은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더듬이 길이까지 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라 남자 팀원들조차 절레절레하게 하는 놈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울 것이다! 토마스 한판 붙자!

2. 레딘친 초등학교



레딘친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양한 초등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활동지이다. 다만 아직 레딘친에서 확실히 우리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았고 수업 내용을 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아 우리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활동지이기도 하다. 그래도 열심히 레딘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슬프지만 조금 반갑게도 레딘친 초등학교의 방학으로 인해 5월 둘째 주부터 3주간 활동이 정지되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만날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히 완벽히 준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였다.

3. UTE



UTE 동아 한국어센터는 동아대학교와 호치민 기술대가 협력하여 설립된 한국인 센터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다. 우리는 여기서 초급 1, 2, 3반, 중급반, 중고급반을 맡아 학생들의 원어민 선생님이로 활동한다.



3. UTE

1. 활동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조금은 더 다양한 콘텐츠로 수업을 진행 하였다. 활동을 시작했던 4월은 어떤 수업 방식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각 반별의 수준도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아 조금은 어려움을 겪어 다양한 시도를 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이번 달에는 한국노래, 문화(명절), 전통 놀이 등을 수업에 적절히 녹여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적인 것뿐만 아니라 웹툰, 광고, 드라마 등 가볍고 재미를 쉽게 가질 수 있는 콘텐츠 또한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딱딱한 수업방식을 벗어나 한국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체험과 수업을 연계를 시켜내니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다.

2. 관계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이러한 것에 무게를 두고 국내교육을 받은 영향 때문인지 반이 많은 UTE 특성상 깊이 못한 관계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중간보고회를 통해 우리의 편협했던 생각들을 좀 더 넓게 생각 할 수 있었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불특정 다수인 여러 친구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자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고 여기서 나중의 깊은 관계형성을 위해 공적인 자리뿐만 아닌 사적인 만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스마일 레스토랑



호치민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스마일 레스토랑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곳으로 매일 2천동(한화: 1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역할은 주로 설거지(2명), 배식(1명), 서빙(1명), 잔반처리(1명)로 나뉘 봉사하고 있다.



4. 스마일 레스토랑

1. 일상적인 활동에서 느꼈던 감정들

스마일 레스토랑 활동을 하는 날이면 마음이 가벼워 진다. 이제 제법 활동지도 익숙해 졌고 봉사자들과도 친분이 쌓여서 그런지 스마일 레스토랑이란 곳이 '내가 원래 있어야 하는 곳'같이 느껴진다. 또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과도 친분이 쌓여 인사도 하게 되었고 또 작은 선물을 받기도 했었다. 그 작은 선물이 사탕이었지만 우리에게, 어느 누구에게는 아주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다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다.

또 식사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 개개인 마다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도 이제는 다 알고 말없이 챙겨드릴 때 서로가 느끼는 그 친밀감과 감정들은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크게 다가온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방지게도 또는 우습게도 보이겠지만 그들이 거부하지 않고 마음 한편에 우리가 있을 자리를 마련해준 느낌이라곤 할까?, 우리가 그들의 작은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 유자차

스마일 레스토랑 앞 커피 가게에서 매번 커피를 사주시며 사랑을 표현해주시는 우리 활동지 봉사자들에게 그 마음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국 유자차를 준비해 대접해 드렸다. 그런데 아쉽게도 유자차가 생각보다 맛있지 않아 우리가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드셔주시는 분들 덕에 우리가 마음을 주려다 오히려 마음을 더 받는 꼴이 되어 버렸다.



중간 격려 방문 & 중간 점검

곁에서 우리를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안산 YMCA
♡ 이강호 감사님 ♡ 과



보고싶었던
사무국
(24시간 팍팍 채워 다녀가신)
♡ 양동화 감사님 ♡

께서 호치민을 방문하셨다!



열심히 중간보고회 준비하는 둘.

사실 중간평가 일정이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중간 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다.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할까, 또 어떻게 해야 두 달 반 동안의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잘 전달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중간 평가는 '평가'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고, 2달 반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누구보다 더 지켜봐 와 주셨던 분들과 함께 하기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활동을 소개하고 우리의 고민을 진솔하게 함께 나누기로 했다.

그래서 먼저 이때까지 생활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고,
활동, 생활에서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Ute에서의 고민

- 학생들 수준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하다. ⇒ 학생들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 수업을 참관한다.
- 지속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
- 수업 사이에 공백시간이 길다. ⇒ 공백시간을 활용하자! 350ppm 캠페인 진행, 공부

홍안유치원

- 우리가 과연 홍안유치원에서 필요한가?
- 아이들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 ⇒ 우리가 위생교육을 실시해 보자!

스마일레스토랑에서 각자에게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 ⇒ 역할을 서로 교환해보자

전체적으로 활동에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가 힘들다.

1달동안 베트남어 수업을 한 이후로 베트남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350ppm 실천

5.16 중간점검



오랜만에 아오자이 입고 우리의 생활과 활동을 발표!



두달 반 동안의
우리의 활동과 생활을 담은
동영상 감상!



두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의 진솔한 개인 소감 공유



다같이
 중간 점검 나눔

(with. 라온아띠 호치민팀, Hanh,
 An, 동화 간사님, 강호 간사님)



동화쌤 피드백

1. Mutual interaction

- 나만이 아닌, 라온아띠, 베트남Y, 사무국
모두 서로서로 영향을 주며 성장하기

2. diverse

- 다양한 국제자원활동의 형태가 있음을 이해하기
- 호치민, 베트남의 상황과 특성을 이해하기

3. challenge

-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활동하기



강호쌤 피드백

- YMCA 중심으로 마을활동 계획해보기

- 현지 상황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라온아띠가 할 수 있는 활동 고민하기

- 다음 기를 위해 활동지에서 많은 피드백 받기

- 팀 규칙 재정비하기

- 라온아띠는 다음을 경험하러 왔지만 팀원 내부에서 더 큰 다음을 얻을 수 있다.

- 라온아띠를 통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 월간보고서 영문판 만들기!





우리의 생활

Bonus. 우리의 일상(생일)



이번 달에 생일자가 3명이나 되었다. 5월 14일 형민 단원을 시작으로, 21일 동혁 단원, 28일 유정 단원까지

매주 토요일, 정확히 일주일 간격으로 생일이어서 다들 무척 신기해 하였다. 그럼 당시 상황에 대해 각 멤버들의 소감을 들어보겠다.

Bonus. 우리의 일상(생일)



형민: 생일자로서 첫 시작을 끝냈는데 기분이 어땠나요?

형민: 일단 제 생일이 강호 감사님 방문일이랑 겹쳐서 준비하느라 많이 고생했을 팀원들 그리고 주말인데도 직접 생일을 축하해 주러 와준 현지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 제 생일을 잘 안 챙기는데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얼떨떨하면서도 매우 기분이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



형민: 형민 단원의 생일에 이어서 바로 다음 주에 생일을 맞게 되었는데요. 당시 현경 단원이 자기 생일인양 감격한 나머지 들고 있던 케이크를 동혁 단원 침대에 얹는 '참사'를 저지르기도 하였는데요. 자신의 침대보와 케이크를 마주한 순간 당시 심정은 어땠나요?

참사 피해자(동혁): 일단 케이크를 받았을 때는 너무 고마웠다. 예상치 못한 깜짝 파티에 경황이 없어서 (현경이가 케이크를 쏟은 걸) 나중에야 알았다. 모두의 표정이 어쩔 줄 몰라 경직되었는데 나라도 웃어야 될 것 같아서 억지로 웃음을 보였다. 참사를 겪고 나니 한편으로는 내 얼굴에 케이크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경아(얼굴에 던지지 않아서) 고맙다.. 😊 😊



테러현장 증거사진

Bonus. 우리의 일상(생일)



형민: ... 동혁 단원의 어떤 점이 그렇게 싫었나요?

테러리스트(현경): 녹즙 티셔츠 색깔(평상시 동혁 단원이 편안하게 입고 다니는 녹색 티셔츠)이 마음에 안 들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그렇지만 정말 고의는 아니었습니다...그냥... 저의 생일인양 너무 기쁜 나머지 그만...(주룩)



현경이가 싫어하는
녹즙티셔츠



형민: 어쩌면 비생일자로서 단원 3명의 생일의 연달아 지켜본 심정을 동혁 단원에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군요. 3번의 생일을 지켜본 소감은 어땠나요?

녹즙 혐오자(현경): 연속해서 3번 케이크를 먹어보니 너무 물리더라고요.



Bonus. 우리의 일상(생일)



형민: 요즘 마일로(초코우유)에 푹 빠져 있는 유정 단원, 팀원들도 거기에 맞춰 마일로 다발을 생일 선물로 주기도 하였는데요. '유정 단원에게 마일로란?'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하신다면?

마일로 공주(유정): 마일로는 저에게 '애증'의 대상이죠. 원래 타사 제품(허x초콜릿)을 좋아했는데 이곳에서 먹은 허x는 정말 별로였어요. 하지만 milo의 인위적이지 않은 달콤함과 부드러운 목넘김은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진지하게 마일로 회사에 취직을 할 지 고민 중에 있어요. 하지만 요즘 마신 마일로 만큼 체중이 늘어난 것 같아 걱정인데 어떡하죠? 호호호~ (인터뷰가 끝난 이후에 그녀는 냉장고에서 마일로를 집어 들었다...)



마일로 다발을 선물 받은 그녀.
하지만 마일로는 일주일도 채 넘기지 못했고, 그녀 역시
울상 지었다는 소문

Bonus. 우리의 일상(생일)



형민: 다음 생일 예정자인 예지 단원, 팀원들에게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까다로운 예지씨: 오므라이스를 해주세요. 단 감자, 당근, 양파, 스팸이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밥 위에는 계란을 예쁘게 올려놓아야 하고, 계란에는 케첩으로 꽃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예지의 생일상이 완성된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글쎄.....)



유정 단원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있는 현경 단원. 과연 이 모습은 진실일까 거짓일까? 진실은 그녀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Bonus. 우리의 일상(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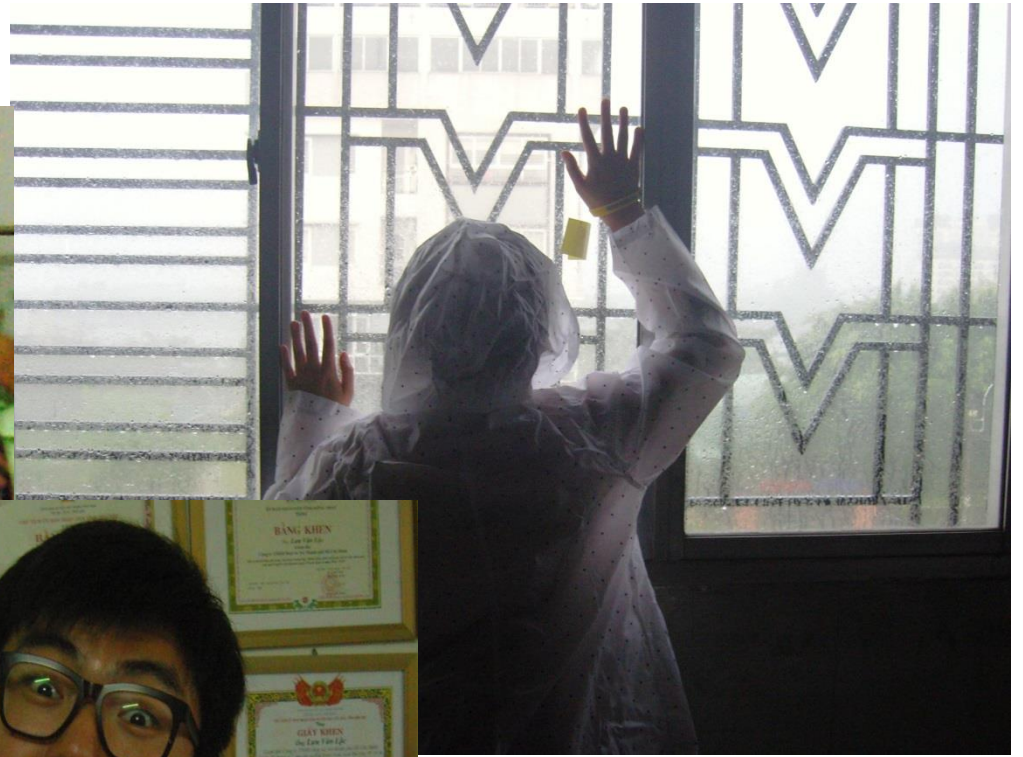
호치민은 요즘 우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기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겠지만 현지에서 우기는 저희한테 단비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날씨가 푹푹 썩어서 한낮에 돌아다닐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요즘은 우기 덕분에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시다냐?
오메? 이거 비 아니여!?
아따 예지야 싸게싸게 밖에 손 좀 내밀어
봐라~
그럼네 참말로 비가 내려부네잉



Bonus. 우리의 일상(우기)



비가 내린 후 보인
이상증상들

Bonus. 우리의 일상 (이창현 단원과과의 만남)

“라운아띠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팀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라운아띠 단원이자, 지금은 코이카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창현 단원을 호치민 시내에서 만났다!
우리보다 먼저 라운아띠를 경험한 선배이자, 함께 국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을 해 주셔서 힘을 얻어갈 수 있던 시간이었다. 지금도 간간히 연락을 하며 우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심! 광찌에서도 잘 지내고 계시죠?



Bonus. 우리의 일상 (카페 티모르 관계자 분들과의 만남)

베트남 현지 커피 재배지 답사차 베트남 YMCA를 방문한 '카페 티모르' 관계자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현지에서 봉사하느라 고생한다며 바쁜 일정 중에도 짬을 내어 맛있는 저녁을 사주셔서 관계자 분들께 무척 감사했다.



카페 티모르 관계자 분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05/28)

Bonus. 우리의 일상 (카페 티모르 관계자 분들과의 만남)



형민: How was dinner with Cafe Timor People?

한(현지 코디네이터): I was very happy because they are very kind and nice to us. They invited our group to have dinner together. The food was very delicious. Everyone enjoyed the meal!



형민: What do you think of Mr. handsome Choi? 😊

한: Who is Mr. handsome Choi? I only know Mr. ugly Choi.



형민: Thank you for cooperating the interview, and hope that we will not see each other again! 😊

Y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



★ Y의 든든한 security 쭈녕

- Y 건물 1층에서 아드님과 함께 생활하시는 콜린퍼스도 웃고 갈 쟈트맨 녀 삼촌!
- 항상 인자한 미소와 중후한 목소리로 우리를 배웅해 주신다.
- 참고로 특히 첫째 아드님이 굉장히 훈남이다^^



실물이 더 잘생김!

★ Y 부엌의 꽃 꼬화

- 우리마을 최고의 맛집을 거느리고 계신 Y부엌의 안방마님 화 이모!
- 항상 맛있는 음식과 사랑이 담긴 요리들로 다섯 돼지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 주신다.
- 유행어 : 이거 다 먹으면 예뻐져 ~
- 덕분에 예뻐지는 중



Y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



★ 이제는 우리에게 둘도 없는 친구이자 코디네이터 한 hanh

- y에서 제일 바쁜 것 같은 한
-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 욕도 잘하는 베트남 인재 (눈치가 뽀바름)
- 중간평가 이후 '한간사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 우리의 부족한 베트남어, 영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찰떡같이 대답해주는 한이 있어 오늘도 이상 무!

★ Y의 든든한 captain 족 총장님

- 베트남 Y의 산 증인 타이 족
- 호치민에 도착하자마자 고수가 듬뿍 들어있는 반미를 선물해주셨다.
^^;;
- 요새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많이 걱정인데 별말리 쾌차하셔서 Y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



Y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



★ 짜 티엔

- Y의 재무관리를 맡고 있는 티엔!
- 귀여운 따님이 최근에 자주 놀러 와서 Y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
- 뒤에서 우리를 알뜰살뜰히 챙겨 주는 고마운존재!



★ Y의 귀여운 공주님 바오짬

- 공주가방과 공주옷을 입고 요즘 Y에 자주 출근도장을 찍는 바오짬 공주님
- 여지언니의 커밋인형을 매우 좋아하며 밥도 아주 잘 먹는 귀여운 꼬마아가씨
- 처음에 낯을 가리던 모습과 달리 지금은 애교섞인 장난들과 소중한 눈망울로 언니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중!



★ Y의 베스트드라이버 탐!

- 첫날부터 쪼잘대던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을 Driver 탐
- 우리과 처음으로 베트남어 대화를 시도하신 분.. ㅎㅎ
- 짜 티엔의 남편이자 바오짬의 아빠

Y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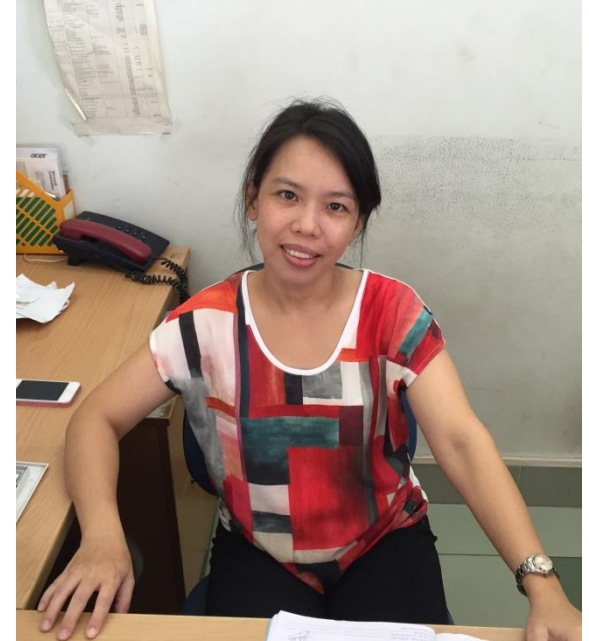
★ 짜안

- Y의 예쁜 셋째언니 느낌을 풍기는 짜안
- 훗날이 할 때 "why they are so lucky... I'm so unlucky..."를 마지막히 외치며 슬퍼했지만 승리한 후 너무 기뻐하며 귀여운 모습을 보여준 언니
- 따뜻한 말로 한번씩씩 감동을 주기도 한다 :)



★ 짜이엔

- 워크캠프 일정으로 자주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 시간날때마다 우리와 많은 얘기를 나누는 이엔언니!
- 뽀뽀한 일정으로 힘들법도 한데 야무진 말언니 같이 내색 한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 특히 소녀시대를 매우 좋아함



★ 짜프엉

- 첫날부터 Talkative 한 모습으로 Y의 활기찬 분위기를 이끄는 프엉
- 호탕하고 쿨한 성격이 그녀의 매력포인트 <_<



되돌아 보기



Minh

1. 활동 소감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에 대해 적응이 되어 전보다 부담감이 덜하다. 초반에는 활동 자체에 대한 부담감(예: 흥안 유치원을 갈 때 말도 안 통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정답: 그냥 몸으로 놀아주면 됨 그리고 아이들은 무지 좋아함)이 있어 피곤함도 더 했지만 지금은 활동을 하면서 소소한 재미(하지만 나에게서는 비중이 큰)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흥안 유치원 활동이 그러한데 아이들은 때때로 여전히 짓궂을 때도 많지만, 아이들과 함께 장난치다 보면 그냥 그 순간에 내가 거기 있음에 감사하고 좋다. 동화 감사님이 중간 방문 때 아이들을 통해 힐링이 된다고 하신 말씀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한편으로는 우리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쉽'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현재 우리는 매주 고정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달 내내 이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지는 않았다. 아마 풀타임으로 뛰었다면 조금 무리가 되는 일정이지 않을까 싶다. 중간에 현지 기관 사정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비는 시간에 충분히 쉴 수 있어서 나머지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2. 중간 격려방문

비록 짧은 중간방문 일정 속에서도 두 간사님께서 내게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해주셔서 감사했다. 국내 교육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활동들을 돌아보면 머리와 마음이 따로따로 놀지 않았나 싶다. 팀원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행동은 이런 생각과 달리, 조금 더 나이와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은연중에 팀원들에게 배우려고 하기 보다는 가르치려고만 했던 자세로 일관했었던 것 같다.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기 보다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앞서 그저 외면하고 감추려고만 한 것은 아닌지 팀원들에 대한 미안함과 깊은 반성이 들었다.

활동 초기에는 이런 초라하게 보이는 내 모습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중간 방문을 계기로 조금씩 마주할 용기가 생긴 것 같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이렇게 인정하고 나니 지금은 한결 편안하다.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Dong



‘내가 활동지에서 필요한 존재인지’부터 시작해서 나를 통해 현지친구들이 어떠한 도움을 받을지, 내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무엇이 남을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등의 고민이 셀 수 없이 나를 찾아왔다.

많은 고민들과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깨달은 생각은 내가 즐겁고 당신이 즐겁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내가 아무리 복잡하게 생각해봤자 크게 달라질 것은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만 들뿐이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후에 이 시간을 되돌아 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또한 지금은 부족함만 느껴지는 발걸음이지만 훗날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더 풍성하게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나의 팀원들도 고민보다는 즐거움을 안고 살아가는 호치민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활동이 끝나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함께 깔깔 웃으며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추억이 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노력해야겠다.

고민보단 즐기는 것, 이것이 내가 남은 2개월을, 내 생애 가장 뜨거운 6개월을 보내는 방법이다.

Chi



중간평가로 정신없던 5월이 지나갔다. 나에게 가장 많은 일이 있었고 가장 아팠고 가장 스트레스 가득했 으면서도 가장 생각이 많았기에 라온아띠 활동 중 기억에 제일 남는 한 달이 될 것 같다. 5월의 리더로 선정되었고 중간평가와 다양한 일들을 조율하다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인지 중간평가가 끝날 무렵 몸이 좋지 못해 활동에조차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혼자서 생각을 할 시간도 많았고 많은 생 각들로 혼자서 굉장히 우울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간평가 때 간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혼자 속으 로만 앓아왔던 것들을 나눌 수 있었고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말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 YMCA는 간사님들을 뽑을 때 말 잘하는 사람으로 뽑는건가 ㅋㅋㅋ 굳이 대화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든든하 게 바라봐주시는 눈빛만으로도 참 힘이되는 중간평가였다. 동화쌤께서 세 가지로 요약 해 주셨던 1.상호 의사소통 2.다양성 3.도전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며 남은 두 달을 즐겁게 살고 싶다.



또한 지역간사님인 강호 쌤께서 개인 상담을 할 때 여유를 좀 가져보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혼자서 카페를 가서 가만히 강을 구경하기도하고 우산 아래에서 세차게 내리는 비를 느껴 보기도하는 등의 시간을 가져보았다. 해야 하는 일이나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빗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으니 내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밖에 가만히 앉아있었던 시간이 있었던가 싶었다. 항상 비가 내리면 건물 안으로 쏙 들어가서 언제 그치나 생각하기만 했지 빗속에서 있자니 오히려 짹짹하기보단 흥가분하고 상쾌한 기분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팀 내 중간 자리에서 밀어주고 동생들을 이끌고 해야한다는 생각에 강박관념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의 고민들도 내려놓고 남은 두 달을 여유롭게 즐기며 살기로 하였다. 그러자 5월 내내 약조의 컨디션 속에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던 머릿속에서 다시금 사소한 일에도 즐거움이 느껴지고 곳곳의 작은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다. 잊고 살았던 감사함이 살아났고 내 몸과 정신도 살아나는 듯하다. 역시 라온아피는 내 인생에 정말 뜨겁고도 행복한 경험임이 틀림없다.

5개월 중에 3개월이 지났다. 5월은 특히 생일이 있는 달이라 괜히 특별하게 느껴지곤 했는데 올해는 베트남에서 보내게 되어 기분이 더 색다르다. 사실 처음에는 3주 연속 생일의 마지막이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팀원들이 깜짝 선물해준 초코우유다발과 코디네이터 한이 선물해준 케익은 기대이상으로 나를 행복하게 했다. 이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주는 팀원들이 있다는 것이 새삼 너무 기뻐했던 것 같다.

5개월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갈 것이라고 다짐했는데 정작 나는 이곳에서 너무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살고 있다.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고 고민이 없는 편이라 처음엔 자꾸 고민을 던져주는 라온아띠 프로그램이 부담도 되었고 과연 내가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괜히 생각도 적고 고민도 없는 내가 싫어지기도 하고 주변사람들이 좋게 좋게 말해주는 것도 괜히 꼬아서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막상 살아보니 다들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오히려 나부터 나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나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스스로가 소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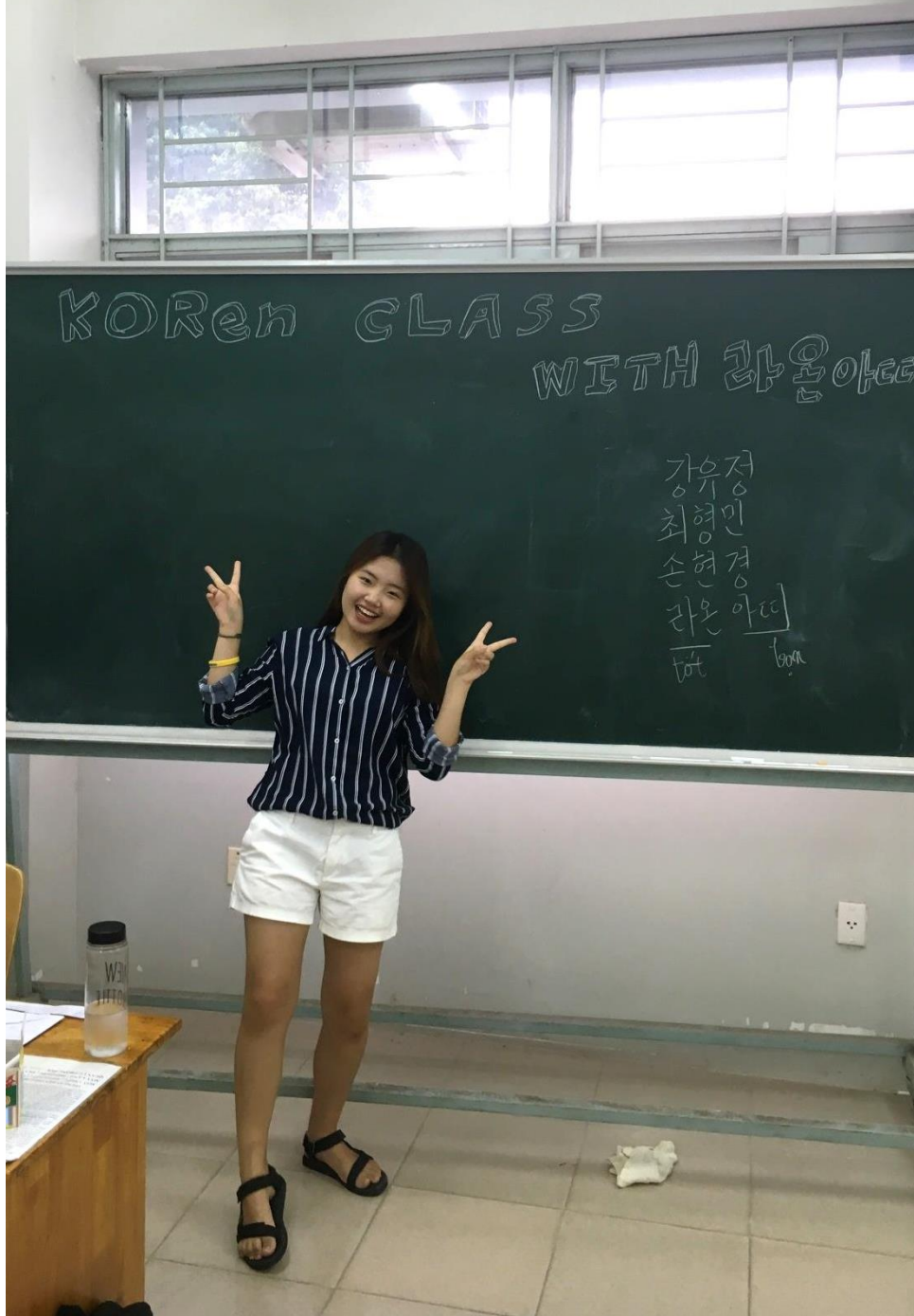
베트남에선 아직도 투애니원 (21) 😊

Mai



간사님과 개인면담을 했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말씀해주셔서 요즘은 다이어리에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적어보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내 자신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살면서 한번쯤 했어야 하는 생각들 일테지만 항상 고민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그쳤던 것 같다. 처음엔 몇 개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작은 다이어리에 적었는데 적어보니 나도 나를 신경쓰고 살았던 게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뭔가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이 차곡차곡 정리가 되는 기분이고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 서툴렀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Linh



1. 우기가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비 오는 날씨가 싫었다. 축축하고 짹짹하고.. 여기에서는 비 오는 것이 너무 좋다. 시원하고 햇빛도 없고.. 비는 사람들을 쉬어가게 하고, 오랜만에 우울하고 차분한 느낌을 준다. 이곳이 꽤나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비 오는 날 호치민의 풍경은 다시 새로움을 준다.
2. 비 오는 날씨 말고도 난 아이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떼쓰고 울고 커창고.. 라온아띠를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귀엽게 보인다. 흥안 유치원에 가면 3세반 아이들과 노는데, 사실 힘든 점도 너무 많다. 시도 때도 없이 내 몸을 타고 오르고 때리고 말도 안듣고..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많아서 화가 날 때도 있지만 돌아서서 보면 또한 명한 명 사랑스럽다. 이곳 유치원은 한 반에 아이들 수가 많아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관심을 주기 힘들고, 선생님은 혼을 많이 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잘해주고 사랑을 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아이들에게 나 또한 사랑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은 사랑을 주는 데 누구보다 거리낌 없고 순수하고 재거나 계산하지 못한다. 그런 사랑을 받고 나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다.



3. 얼마 전에 정말 할 것이 없어서 책을 읽다 '엠마오의 길'에 대한 내용을 인상 깊게 읽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란 예수가 죽은 후 그의 제자 둘이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그 길이다. 두 제자는 예수의 죽음으로 몹시 상심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스승이 부활한 것보다 그 죽음으로 인해 상심하고 있는 자신들의 마음이 더 중요했을지도 모른다. 체력이 딸리거나 날씨가 더워 힘들 때도 있고 가끔 한국이 가고 싶을 때도 있고..반쯤 지나니까 익숙해지고.. 5월이 되면서 유난히 더 불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었다. 나도 저 두 제자들처럼 나의 커찮음, 불평, 짜증에 빠져 이제 진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의 행복과 소중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 팀원들과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남은 두 달도 행복함으로 채워가고 싶다.



Enjoy Monday

다음달에 만나요 😊